

흑암과 사탄을 꺾는 잠언의 참된 지혜

-복음으로 여는 잠언-

잠언 4:18-19, 요한일서 3:8

정윤돈 목사님

* **잠4:18-19**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의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질병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삶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 어려움을 주신 절대미션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적용하고 성취될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흑암과 어두운 길로 가게해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혜의 길,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면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광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 속에 비추어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의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도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나 원래 착한 성격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독하고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 원래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을 붙잡은 만큼 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마귀이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한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면 망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흑암과 어리석음을 꺾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이다. 지혜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는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마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직장생활할까? 이런 것이 꼭 차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돈도 벌어야 한다. 조건은 그리스도로도 답이 나오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고 전도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 다 버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내리면 우리는 지혜로운 빛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잠언에서 약속한 모든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도둑놈이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 좋은 일을 말씀으로 주신다. 그러나 마귀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 완전히 멸망하게 한다. 건강, 돈, 가정, 자녀를 다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된다.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인생에는 참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이 온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만드셔야 한다. 말씀과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오늘의 그 문제를 참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잠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은 여러 명의 지혜자들이 기록한 잠언들이라고 2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다.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는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 1절에서 9절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르우엘 왕에게 교훈한 잠언이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1. 잠언은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이다. 이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였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는 나중에는 심하게 타락하였다. 그는 참된 지혜의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잠언에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로 행하였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잠언에서 ‘지혜’, ‘지식’, ‘명철’라는 단어를 ‘예수’나 ‘복음’으로 바꿔 읽으면 오히려 더 정확히 이해가 될 때가 많다. 잠언 2장 10절 “곧 지혜(예수)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예수)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예수, 복음)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3장 18절 “지혜(예수, 복음)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예수, 복음)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와 명철은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특별히 후대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은 특히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나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이제 모든 책과 전문과 지식에 올인해야 한다. 흑암에게 빼앗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후대들은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먼저 결론 내라. 그리고 전도가 내 인생의 절대목표가 되고 그 후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분야의 서밋이 되어라.

2.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라

고 말씀하고 있다. 명철은 분별력, 이해력, 깊이 파악하는 능력, 상황을 꿰뚫어 보는 지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우주만물을 견고히 만드신 그 지혜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 당연히 우리는 빛이 되야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계속할까? 빛이 없기 때문이다. 안 보이면 못 치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안 좋고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 빛이 없으니깐 안 보이는 것이다.

3.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즉 잠언은 우리들이 창세기 3장 이후 잃어버린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지혜와 지식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4. 잠언은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이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잠언에서 지혜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 감정조절을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2) 음녀에게 빠지자 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3)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태만한 사람은 주될 것이니라”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어리석은 사람은 독주와 포도주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특히 왕은 술중독에 빠지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사람을 거만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2)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교훈하고 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알콜중독자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깨닫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켈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5)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비뚤어진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마음과 생각이 구부러지면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 마음에 마귀가 꼭 차있어서 드러나는 것이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라고 말했다.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혜이신 참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 큰 두 번째 잠언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지혜로운 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1)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낮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는 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적인 지혜의 책을 읽고 전문성을 쌓아야 그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디를 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으며 인정받게 된다.

(2)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를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학벌은 상관없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리더자가 될 수 있다.

(3)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5)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1장 24절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6) 의논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7)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잠언을 쭉 읽으며 평생 언약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신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확실한 승리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영혼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잠기어 복음이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람과 가정, 가문,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참사탕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